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61-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3 부동산인식조사:
부동산 투자 및 주택 보유 인식

2023. 12. 20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 41%, 바람직하지 않다 50%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2021년 이후 매년 3%포인트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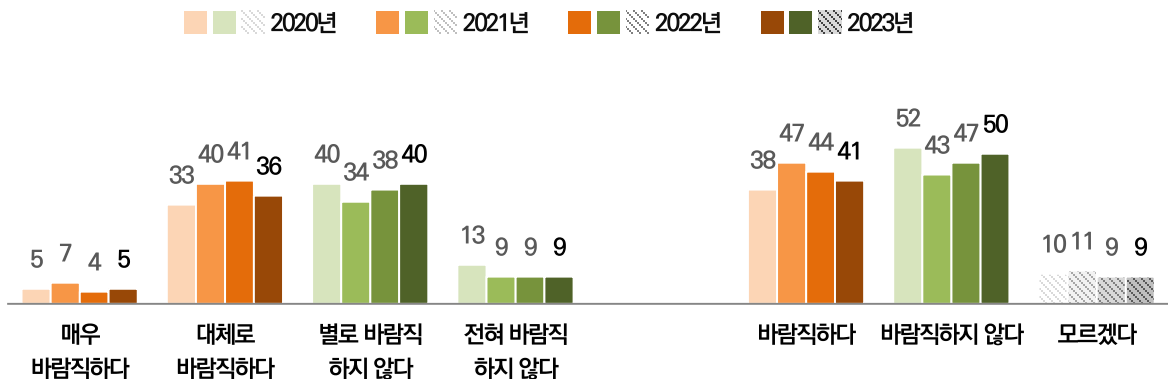
2023년 11월 10일 ~ 13일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1%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매우 바람직하다 5%, 대체로 바람직하다 36%). 반면 50%는 부동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본다(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9%,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40%).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2021년(47%) 이후 2년 연속 3%포인트씩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30대(53%)에서 과반을 넘는 반면, 50대(39%)와 60세 이상(34%)에서는 40%에 미치지 못한다.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이 없는 사람(36%), 진보층(38%)과 중도층(39%)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40%를 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과반이다.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 41%, 바람직하지 않다 50%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2021년 이후 매년 3%포인트씩 감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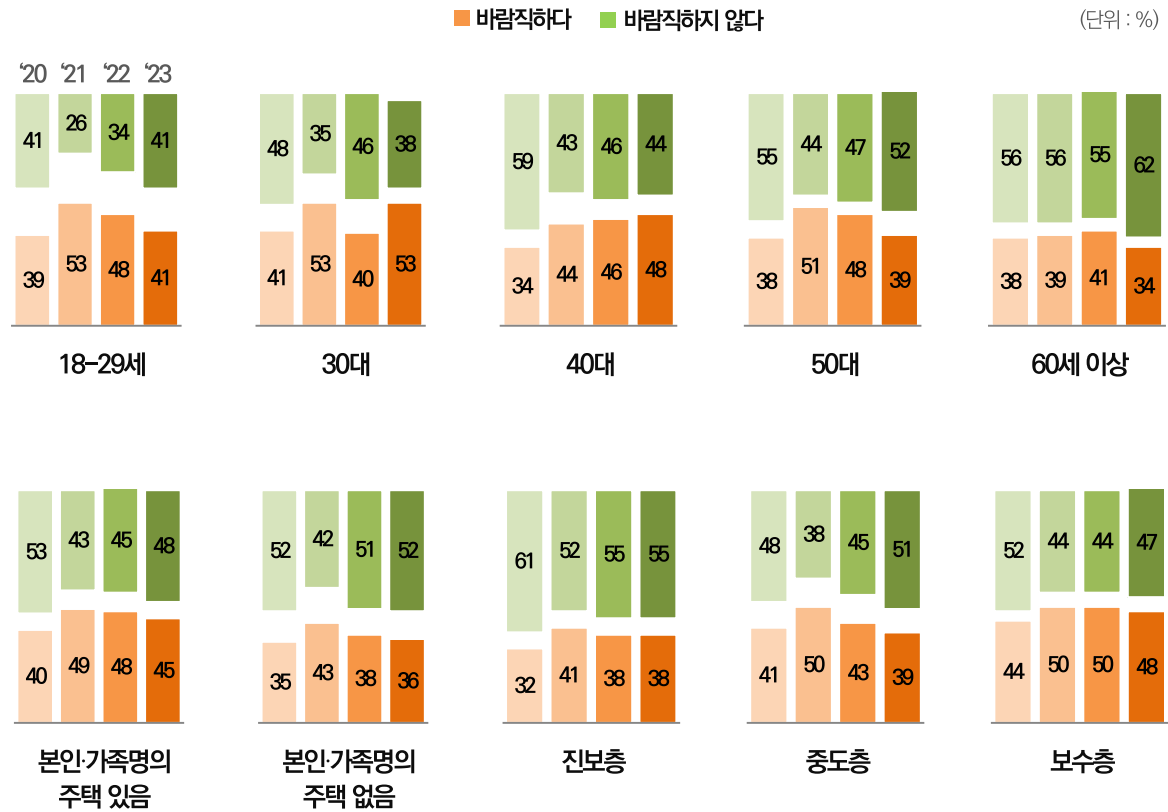
질문 :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9. 25 ~ 28 // 2021. 11.12 ~ 15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0대, 60세 이상에서는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다' 30%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진보층은 절반 이상이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



질문 :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28 // 2021. 11.12 ~ 15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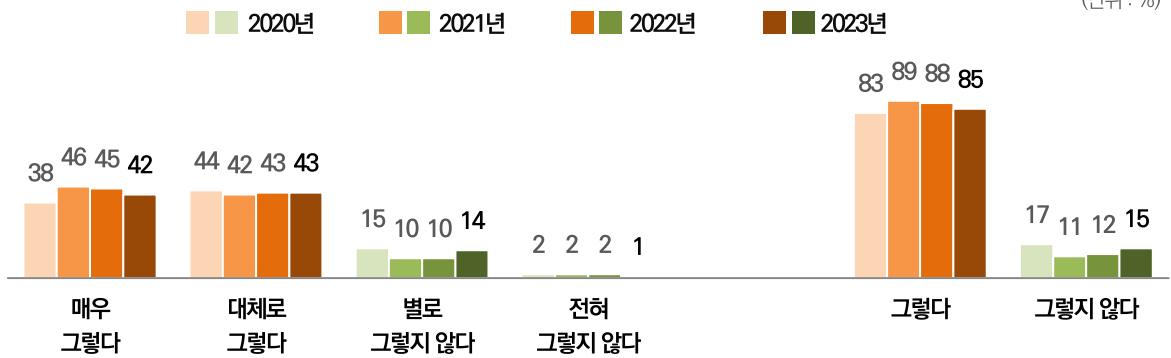
2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85%, 여전히 높지만 지난 해 대비 3%포인트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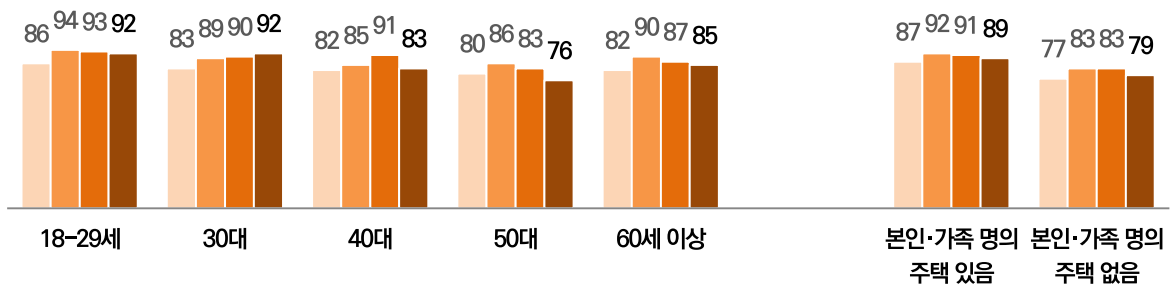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85%가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매우 그렇다 42%, 대체로 그렇다 43%). 2021년(89%), 지난해(88%)에 비하면 소폭 하락한 결과이나, 여전히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8-29세(92%)와 30대(92%)는 90% 이상이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40대 이상 대비 높다.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85%, 여전히 높지만 지난 해 대비 3%포인트 떨어져

(단위 : %)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응답



질문 :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0. 9. 25 ~ 28 // 2021. 11. 12 ~ 15 // 2022. 10. 14 ~ 17 // 2023. 11. 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보유세 인상되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64% → 55%**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 커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53% → 38%**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 소유 의향의 변화, 부동산 보유 비용 증가에 따른 주택 소유 의향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보다는 부동산 보유 비용 증가가 주택 소유 의향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5%,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7%로 모두 지난해와 큰 차이 없다. 주택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2%,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6%로 지난해 대비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감소했으나 역시 큰 변화는 아니다.

‘보유세 인상되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 커지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모두 지난 해 대비 소폭 하락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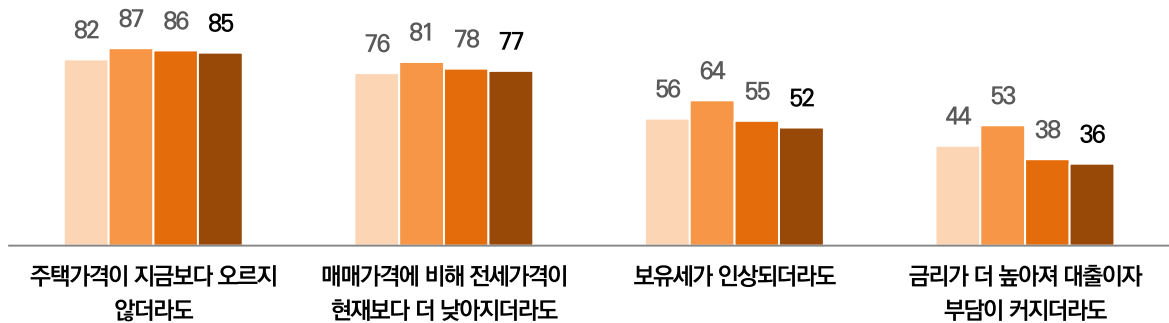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응답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질문: 주택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비고: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9. 25 ~ 28 // 2021. 11.12 ~ 15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부동산 가치 변동, 부동산 보유 비용 변동이 내 집 소유에 미치는 영향 변화는 크지 않아

(단위 : %)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응답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차이					차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 2022년)
전체	82	87	86	85	-1%p	76	81	78	77	-1%p
연령										
18-29세	83	90	85	86	+1%p	73	83	70	73	+3%p
30대	84	86	87	88	+1%p	74	80	75	80	+5%p
40대	79	83	88	84	-4%p	76	78	84	74	-10%p
50대	81	85	83	77	-6%p	74	78	73	71	-2%p
60세 이상	84	91	87	88	+1%p	79	86	83	81	-2%p
주택 보유 여부										
보유함	88	91	90	88	-2%p	80	85	84	81	-3%p
보유하지 않음	75	81	79	80	+1%p	70	75	67	70	+3%p
주택관련 비용 매월 지출										
하고 있음	81	86	85	85	-	74	81	77	75	-2%p
하지 않음	84	88	88	85	-3%p	78	82	79	79	-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응답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차이					차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 2022년)
전체	56	64	55	52	-3%p	44	53	38	36	-2%p
연령										
18-29세	54	67	55	54	-1%p	43	55	35	35	-
30대	55	62	52	54	+2%p	40	49	35	36	+1%p
40대	57	59	57	55	-2%p	38	53	32	38	+6%p
50대	55	60	51	50	-1%p	50	50	38	36	-2%p
60세 이상	56	68	59	51	-8%p	46	54	44	35	-9%p
주택 보유 여부										
보유함	60	67	59	57	-2%p	47	55	42	38	-4%p
보유하지 않음	49	58	48	45	-3%p	40	49	29	32	+3%p
주택관련 비용 매월 지출										
하고 있음	54	62	53	51	-2%p	41	52	37	37	-
하지 않음	58	65	57	54	-3%p	47	53	38	35	-3%p

질문 : 주택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 보유세가 인상되더라도 내 소유의 집은 있어야 한다

비고: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9. 25 ~ 28 // 2021. 11.12 ~ 15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3 주택 구입·매도 시기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다 23%, 현재 계획 없다 53%

5년 내 주택 매도 계획 있다 27%, 현재 계획 없다 58%

5년 내에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3%이다(1년 내 3%, 1~5년 내 20%). 특히 30대에서는 3명 중 1명(35%)이 5년 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는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53%이며, 특히 50대(60%)와 60세 이상(72%)에서는 10명 중 6~7명이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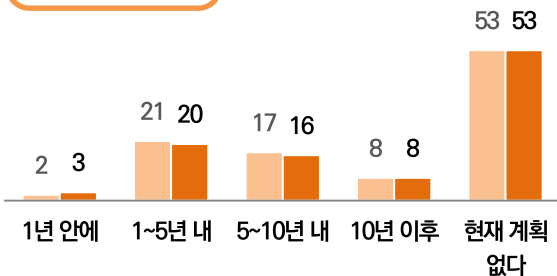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27%가 향후 5년 내에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1년 내 4%, 1~5년 내 23%). 반면 58%는 현재는 집을 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을 보유한 18~29세에서는 10명 중 9명(89%)이 현재는 주택을 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다 23%
현재 주택 구입 계획 없다 53%

(단위 : %)

■ 2022년 ■ 2023년

5년 내
주택 구입 계획
있음 23%



질문 :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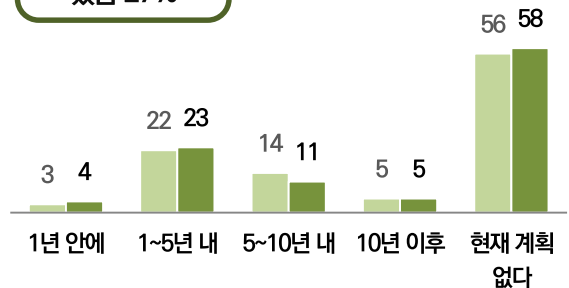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5년 내 주택 매도 계획 있다 27%
현재 주택 매도 계획 없다 58%

(단위 : %)

■ 2022년 ■ 2023년

5년 내
주택 매도 계획
있음 27%



질문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팔 예정이십니까?

응답자 수: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 소유자(2022년 635명, 2023년 601명)

조사기간 : 2022. 10.14 ~ 17 // 2023. 11.10 ~ 13

30대의 35%, 향후 5년 내 주택 구매 계획 있어

(단위 : %)

	사례 수 (명)	주택 구입 계획						
		1년 안에	1~5년 내	5년 내	5~10년 내	10년 이후	현재는 계획 없다	계
전체	(1000)	3	20	23	16	8	53	100
연령								
18~29세	(162)	1	9	10	22	27	41	100
30대	(149)	5	30	35	25	10	30	100
40대	(180)	4	21	25	29	3	43	100
50대	(195)	4	21	25	12	3	60	100
60세 이상	(314)	2	20	22	5	2	72	100
주택 보유 여부								
보유함	(601)	3	17	20	13	6	61	100
보유하지 않음	(399)	3	24	27	20	10	42	100
거주지역 집값 인식								
비싸다	(585)	4	22	26	20	7	47	100
적당하다	(242)	2	19	22	10	12	57	100
싸다	(173)	1	13	14	13	5	69	100

질문 :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이 있는 18~29세의 89%는 주택 매도 계획 없어

(단위 : %)

	사례 수 (명)	보유 주택 매도 계획						
		1년 안에	1~5년 내	5년 내	5~10년 내	10년 이후	현재는 계획 없다	계
전체	(601)	4	23	27	11	5	58	100
연령								
18-29세	(79)	0	9	9	1	1	89	100
30대	(74)	9	26	34	17	7	42	100
40대	(115)	4	26	30	16	9	44	100
50대	(122)	4	25	29	11	4	57	100
60세 이상	(212)	4	24	27	9	3	60	100
주택관련 비용 매월 지출								
하고 있음 - 부담됨	(253)	5	28	33	13	7	48	100
하고 있음 - 부담 안 됨, 모름	(45)	7	24	30	2	4	63	100
하지 않음	(303)	2	18	21	11	3	65	100
거주지역 집값 인식								
비싸다	(291)	4	22	26	11	6	57	100
적당하다	(172)	4	20	25	10	4	62	100
싸다	(137)	3	27	30	11	4	55	100

질문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 팔 예정이십니까?

응답자 수 :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 소유자 601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3 이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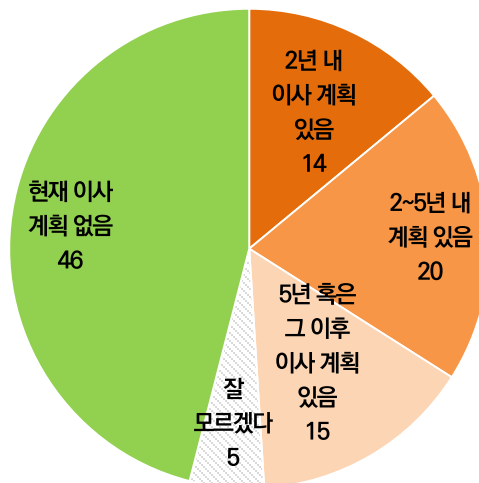
2년 내 이사 계획 있다 14%, 2~5년 내 이사 계획 있다 20%
30대, 전세 거주자의 57%가 5년 내 이사 계획 있다고 답해

비용 지불 능력 등 현실적인 조건까지 모두 고려할 때, 2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4%이다. 2~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20%)까지 고려하면, 3명 중 1명 정도가 5년 내 이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특히 30대에서 높는데, 절반이 넘는 57%가 향후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3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5년 내 이사 의향이 30% 전후 수준으로, 제법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7%가, 1인가구는 46%가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년 내 이사 계획 있다 14%, 2~5년 내 이사 계획 있다 20%

(단위 : %)



질문 :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비용 지불 능력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답변해주세요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0대, 전세 거주자 절반 이상이 5년 내 이사 계획 있다고 밝혀

(단위 : %)

	사례 수 (명)	2년 내 이사		5년 내 이사 계획 있음	5년 혹은 그 이후 이사 계획 있음	현재는 이사 계획 없음	잘 모르겠다	계
		계획 있음	2~5년 내 이사 계획 있음					
전체	(1,000)	14	20	34	15	46	5	100
성별								
남자	(495)	13	19	33	15	47	5	100
여자	(505)	15	22	36	15	44	4	100
연령								
18~29세	(162)	18	12	30	8	53	9	100
30대	(149)	24	33	57	16	23	4	100
40대	(180)	12	23	34	23	39	4	100
50대	(195)	14	18	32	17	48	2	100
60세 이상	(314)	9	19	28	12	56	4	100
거주지역								
서울	(186)	15	26	41	12	42	5	100
인천/경기	(320)	12	24	36	18	41	5	100
대전/세종/충청	(107)	20	14	33	14	49	3	100
광주/전라	(97)	7	19	26	10	58	6	100
대구/경북	(98)	16	15	30	13	53	4	100
부산/울산/경남	(149)	16	15	31	20	43	6	100
강원/제주	(43)	13	20	34	12	54	0	100
주택 보유 여부								
보유	(601)	10	20	31	17	49	4	100
미보유	(399)	20	21	40	13	41	6	100
주거 형태								
자가	(617)	10	17	27	16	53	4	100
전세	(160)	25	32	57	17	23	3	100
월세	(196)	19	22	41	10	42	7	100
미성년 자녀 유무								
미성년자 자녀 있음	(209)	19	23	41	23	34	2	100
미성년자 자녀 없음	(791)	13	20	33	13	49	5	100
가구원 수								
1명(1인가구)	(159)	23	23	46	10	34	10	100
2명	(268)	11	22	33	15	46	5	100
3명	(287)	15	19	34	16	47	2	100
4명	(225)	13	17	30	17	50	4	100
5명 이상	(61)	4	24	28	16	53	3	100
현 거주주택 형태								
단독주택	(125)	16	12	27	11	57	5	100
아파트	(649)	12	22	34	16	45	4	100
연립·다세대주택	(203)	19	20	40	15	40	5	100

질문 :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비용 지불 능력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답변해주세요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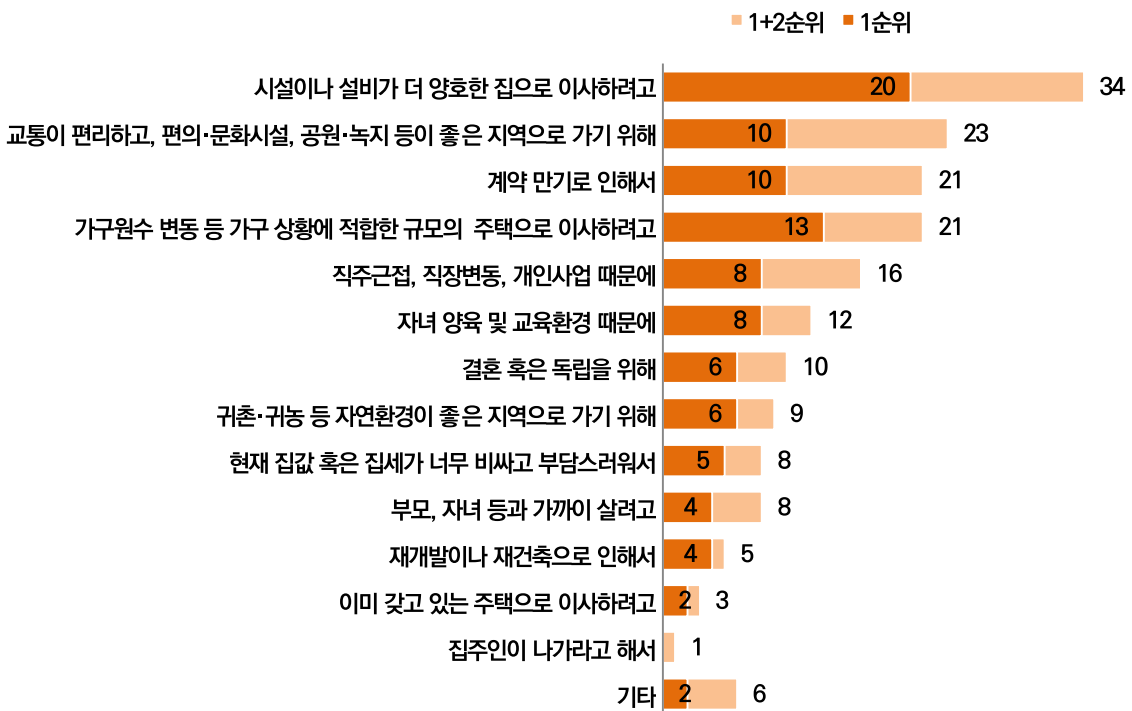
주된 이사 이유는 주거·생활환경 개선, 계약만기 등 이사할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각각 26%

5년 내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로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34%)', '교통 편리, 편의·문화시설, 공원·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23%)',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만기(21%)', '가구원수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 주택으로 이사(21%)'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1+2순위).

5년 내 이사를 할 지역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2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부산(6%), 인천(5%), 대구(5%) 등 서울과 경기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는 사람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전체 응답자 중 75%가 현재 거주하는 광역시·도 내에서 이사를 갈 예정이며, 현 거주지와 다른 광역시·도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25%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반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5% 미만으로 매우 적으며, 대다수는 수도권 내 이동(53%) 혹은 비수도권 내 이동(40%)을 계획한다. 또한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이사(특·광역시에서 도로 이사 9%, 도에서 특·광역시로 이사 10%)보다는 동일 행정단위 내 이사(특·광역시에서 특·광역시로 이사 39%, 도에서 도로 이사 42%)의향이 더 높다.

주된 이사 이유는 주거·생활환경 개선, 계약만기 등

(단위 : %)



질문 :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비고: 최대 2순위까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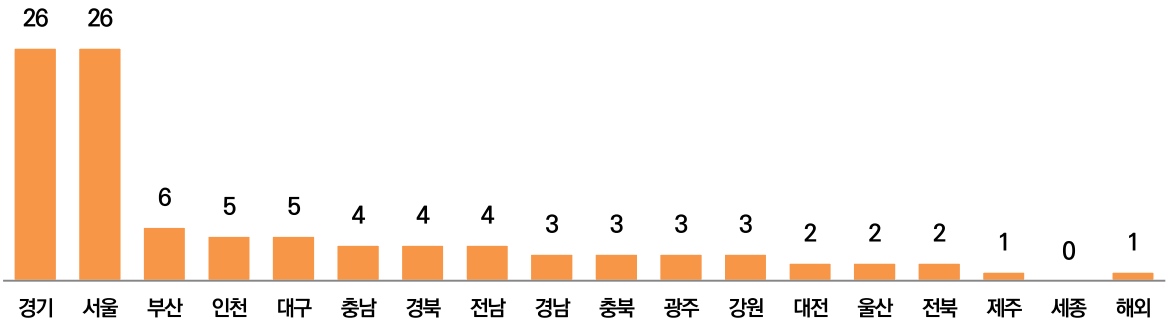
응답자 수: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344명

조사기간: 2023. 11.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사할 지역은 경기, 서울이 각각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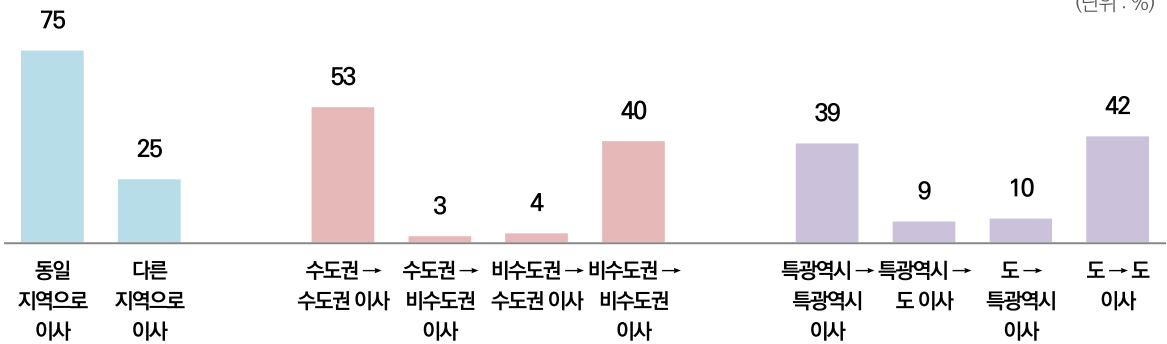
(단위 : %)



4명 중 3명은 현재 거주하는 시·도 내 이사를 계획

수도권 ↔ 비수도권 이사, 특광역시 ↔ 도 지역 간 이사는 많지 않아

(단위 : %)



질문 :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십니까?

응답자 수 :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344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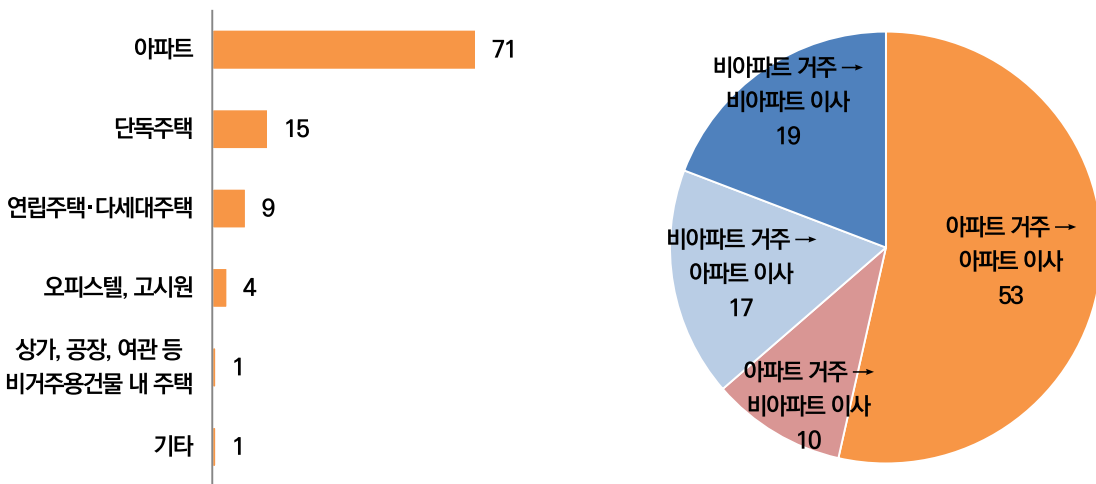
아파트로 이사 계획 71%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71%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단독주택(15%), 연립·다세대주택(9%), 오피스텔·고시원(4%) 등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아파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선호와 기대감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아파트 거주자이면서, 다음 이사도 아파트로 가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5년 내 이사 계획을 가진 사람 중 53%를 차지한다. 현재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10%)보다 다섯 배 더 많다. 반면 비아파트 거주자이면서, 다음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이 전체의 17%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의 71%는 아파트로 가기를 희망
비아파트 거주자이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 이사 계획자 중 17%

(단위 : %)



질문 : 어떤 유형의 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하십니까?

응답자 수: 5년 내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344명

조사기간 : 2023. 11.10 ~ 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10월 기준 약 89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883명 , 조사참여 1,33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7%, 참여대비 74.8%)
조사일시	• 2023년 11월 10일 ~ 11월 13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